

- 532년 금관가야 멸망
구해왕 신라에 투항, 금관군을 식음으로 이사
- 562년 대가야 멸망
- 661년 왜와 1차 수호왕릉 건설
- 668년 신라 삼국 통일-통일신라
- 888년 진경대사(의상)의 장엄에 불탑사자가 건설
- 918년 고려 건국(고려 개국)
- 940년 왜와 2차 김해조경(수리)·수출·김해왕·가야부 영동
- 1012년 왜와 3차 김해(수리)·수출·김해왕·가야부 영동
- 1076년 일연(일암공주)의 가야국기 문헌
- 1392년 조선 건국(가야부 영동)
- 1408년 태종 8년 김해향교 설립
- 1413년(태종 13년) 김해도호부(조해)로 승격
- 1792년(정조 16년) 가락국 시조왕릉 제사
-
- 2006~2008년 김해 죽곡리 구산동유적 발굴조사
- 2014년 테마전 「김해, 가야를 벗고 고려-조선을 입다」 개최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테마전
金海
가야를 벗고
고려·조선을 입다



테마전
金海, 가야를 벗고
고려·조선을 입다

海 金 海 金 海 金 海 金 海 金 海

표제: '金海'라는 글자는
본청사기첩시에 있는 것이다.

| 테마전 |

金海

가야를 벗고

고려 · 조선을 입다



가야토기에서 도자기를 굽는 터전으로 바꾸다

낙동강을 끼고 살아온 김해는
풍부한 자원을 짊어지고
질은 물길을 따라 주변 지역과 교류하면서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고대 가야의 찬란함을 접고
김해는 다시 한 번
토기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굽고 사용하면서
또 다른 터전을 일구어나갔습니다.

이 작은 도록은
'김해는 금관가야' 라는 상징성에서 벗어나
그 이후의 변변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생각해보고자
테마전시의 일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장 김정완

김해, 가야에서 고려 · 조선까지 이르다

1. 김해,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다 _ 7

청자, 유약에 반하다 _ 8

분청사기, 귀얄로 멋부리다 _ 14

백자, 우유빛 단아함에 물들다 _ 22

2. 무덤에 넣는 물건들의 의미를 들여다보다 _ 29

청동그릇을 무덤 속에 넣다 _ 30

왜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넣었을까? _ 42

동그란 돈, 동전 _ 48

죽어서도 배부르게 하여라 _ 52

남자도 머리에 장신구를 하였네 _ 58

왜 쇠가위를 묻었을까? _ 60

그 외 여러 가지 물건들 _ 62



김해, 가야에서 고려·조선까지 이른다

요갱(腰坑): 무덤 구덩이 바닥에 작은 구덩이를 파서 중요한 유물을 넣어두는 곳. 삼한시기의 널무덤에서 주로 확인되기 시작함.

편방(便房): 조선시대 무덤 구덩이의 측면에 또 다른 작은 구덩이를 파고 유물을 넣어두는 곳임.

향좌측(向左側): 무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왼쪽을 가리킴.

김해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조선시대 무덤이 확인된 유적은 대략 20여개에 달하며, 그 중 구산동유적과 죽곡리유적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널무덤(木棺墓)이며, 고려시대 무덤에서 요갱, 조선시대 무덤에는 편방(便房)이 확인된다. 무덤 내에서는 주로 토기류, 청자·분청사기·백자 등 도자기류와 동전이나 그릇, 숟가락과 젓가락, 거울과 같은 청동제품, 구슬과 동곳류의 장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죽곡리유적의 경우 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고려 중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무덤은 조선 전기부터 임진왜란 전후인 16세기대까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묘가 확인되는데, 2개의 무덤을 나란히 배치하고 향좌측(向左側)이 주로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구산동유적은 조선시대 무덤 2,400여기 중에 널무덤 1,193기, 직장묘(直葬墓) 1,118기로 구분된다. 주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사용된 자기류가 매납되어 있다. 구산동·죽곡리유적의 항공사진을 보면 제한된 구역내에 뿔뿔이 들어찬 무덤의 분포도를 알 수 있다.



김해 죽곡리유적 전경



김해 죽곡리유적의 유구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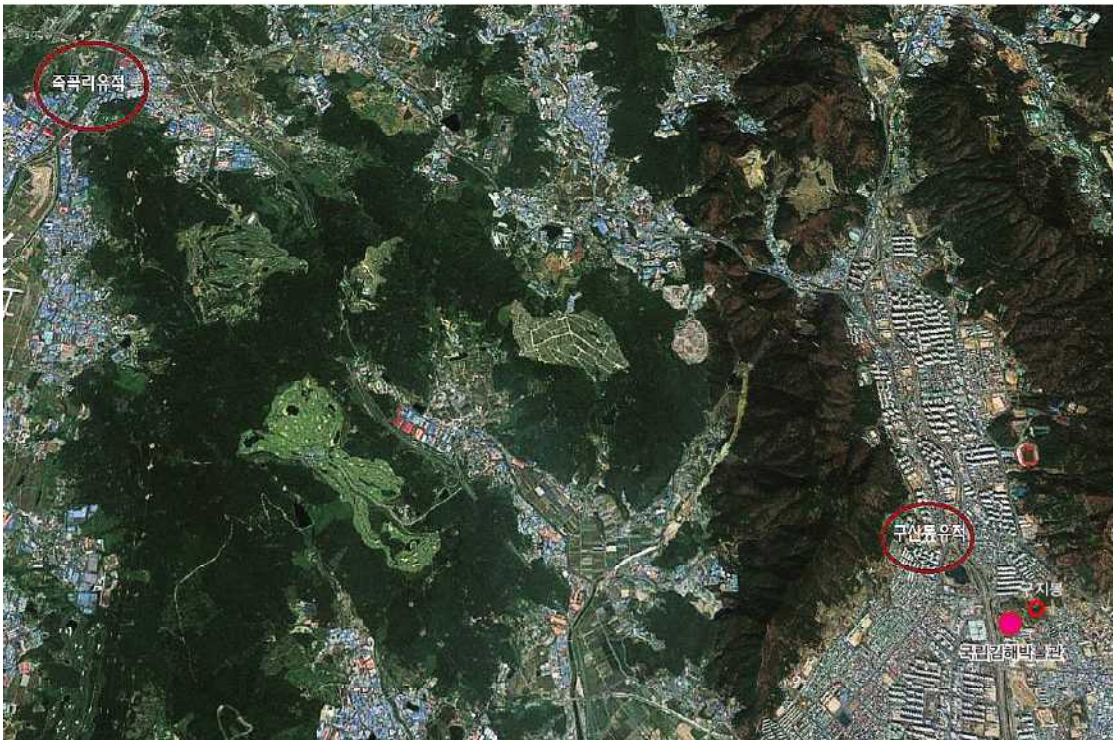
김해 구산동유적 전경



김해 구산동 2433호



김해 구산동유적의 유구 분포현황





1. 김해,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다

김해 구산동·죽곡리유적의 고려·조선시대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는 자기류는 청자·분청사기·백자로 구분된다.

죽곡리유적의 청자류는 해무리굽 등 초기 청자의 특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고려 중기~후기에 걸쳐 제작된 것이며, 선이나 인화상감, 앵무문이나 압출양각기법 등의 장식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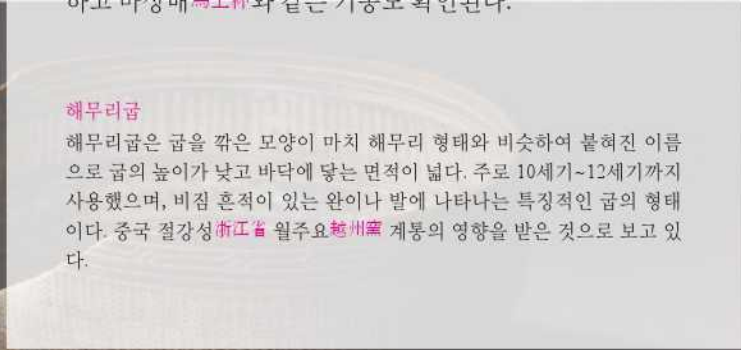
분청사기는 도상무늬·상감·귀얄 등의 기법이 확인되며, 공납용임을 말해주는 '공공·金海김해+長興庫用장흥고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주로 구산동유적의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청동제품과 자기류가 함께 부장되는 경우가 많고, '長興庫장흥고'라는 글자가 새겨진 분청사기 그릇으로 보아 15세기에서 16세기의 자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 '金海김해'라는 글자와 함께 그릇의 안쪽에는 용도나 지역 명칭을 표시하고, 바깥면에는 '長興庫장흥고'와 같은 관청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죽곡리유적의 백자연적은 조선 중기에 제작된 것이며, 구산동유적의 상감백자병은 분청사기의 전통기술 체제를 지속하면서 백자라는 원료를 바꾸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과방果方'과 같은 글자는 백자를 사용한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마상배馬上杯와 같은 기종도 확인된다.



해무리굽

해무리굽은 굽을 짙은 모양이 마치 해무리 형태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굽의 높이가 낮고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다. 주로 10세기~12세기까지 사용했으며, 비집 흔적이 있는 완이나 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굽의 형태이다. 중국 절강성浙江省 월주요越州窯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자, 유약에 반하다

퇴화: 백토나 자토를 물에 개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진사: 초벌구이한 그릇 표면에 진사(산화동 靑化銅)을 바르고 유약을 시유해서 구우면 밝은 적갈색을 나타냄.

철화: 유약을 바르기 전에 산화철이 포함된 안료로 그림을 그리며, 적색으로 나타남.

철채: 철사 안료를 그릇 표면 전체에 칠한 후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구우면 검게 변함.

청자靑磁는 백색의 태토와 유약에 미량의 철분이 들어 있어 1300℃ 정도의 고온에서 환원염還元焰으로 구워지기 때문에 청록색, 비색靑色이라고 부르는 색을 띠게 된다. 그러나 청자를 구울 때 환원이 불충분하거나, 불순물이 함유되는 경우에는 녹황색·회녹색을 띠며, 산화되는 경우에는 황갈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해 구산동·죽곡리유적의 수많은 무덤에서 확인되는 청자의 색을 살펴보면 대부분 회녹색이나 황녹색을 띠며, 소성의 질도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상급의 청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덤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청자의 존재는 당시 일반인들까지 무리없이 청자를 소유하고 사용했으며, 이를 소중히 여겨 무덤까지 넣어두는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자는 장식기법에 따라 안료나 색을 사용하지 않고 무늬가 없는 순수청자, 청자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상감청자, 이후 화청자靑靑磁라고 해서 진사靑砂나 철화靑畫, 철채靑彩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화려하게 무늬를 베풀었다.

김해 구산동·죽곡리유적의 청자에는 상감, 압출기법으로 그려진 무늬 정도만 확인된다.



김해 죽곡리·구산동유적 출토 청자

빙결

청자 표면에 나타난 미세한 금이다. 고온 소성 후 식히는 과정에서 태토와 유약의 수축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흠집이 아니다.



국화문상감청자잔 | 고려, 죽곡리 15호, 입지름 5.2cm

환원염

가마 속에 도자기를 구울 때 불구멍을 열어놓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굽다가 1,100℃ 이상 되면 불구멍을 막는데, 이때부터 산소가 차단되면서 환원으로 바뀌게 된다. 산소가 차단된 가마 내부는 불완전연소 상태이므로 태토나 유약에 포함된 철분 속 산소까지 빼내서 연소시키는 환원작용으로 인해 푸른 색인 청자 빛깔로 되는 것이다.



청자접시 | 고려, 죽곡리 4호, 입지름 10.1cm

비짐

도자기를 구울 때 그릇과 그릇을 포개어 놓을 때 굽의 바닥에 놓는 것으로, 굽고 난 뒤에 그릇들이 서로 잘 떨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에 잘 견디는 규석 등이 포함된 흙을 작게 빻어 1cm 내외의 작은 공모양의 받침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불에 잘 견뎌내기 때문에 내화토 받침이라고 한다. 고려 중기에는 규석덩어리인 차돌을 이용해서 비짐으로 사용했는데, 규사목 靑砂目이라고도 한다. 후기에는 그냥 모래를 뿌려 사용하고 바닥을 자갈로 문질러 남아있는 모래를 깨끗이 제거하였다.



청자함 | 고려, 구산동 89호, 입지름 6.6cm



청자와 청자사이의 비짐을 놓은 상태

상감청자

그릇에 무늬를 파낸 후, 그 안에 백토나 산화철이 포함된 자토를 채워서 초벌구이를 하면, 백토는 하얀 색, 자토는 검은 색으로 변한다. 초벌 후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구우면 완성된다. 반대로 무늬를 그대로 두고 무늬 외 바탕을 깎아내는 박지剝地라는 역상감기법도 있다.



국화문상감청자접시 | 고려, 구산동 89호, 입지름 10.8cm



국화문상감청자발 | 고려, 죽곡리유적, 입지름 19.1cm



팔각상감접시 | 고려, 죽곡리 15호, 입지름 9.8cm



국화문상감청자접시 | 고려, 구산동 89호, 입지름 10.8cm



안출양각화형청자접시 | 고려, 죽곡리 4호, 15호, 입지름 10.1cm

분청사기, 귀얄로 멋부리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의 쇠퇴로 나타난 도자기로 조선 초기에는 투박하고 암록색을 띠는 것이 많았다. 분청사기는 청자나 백자와는 달리 활력이 넘치는 자유분방한 특징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생략·변화시킨 무늬 구성이 독특하다.

분청사기에는 상감象嵌·인화印花·조화造花·박지剝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늬를 장식하였으며, 15세기 중반 이후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백자 생산이 활발해졌다. 분청사기에도 귀얄기법 대신 덩빙기법으로 백자처럼 보이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신화철로 그려넣는 철화분청사기도 등장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백자가 분청사기의 자리를 대신하여 유행한다.

1417년(태종 17) 호조戶曹에서 관물을 훔치거나 잃어버리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분청사기를 사용한 관청이나 제작지 등에 관한 글을 새겨넣어 책임지도록 하였다. 특히 구산동유적에서는 그릇 안쪽 바닥에 '金海金海', 그릇 바깥면에 '長興庫用장흥고용'이라고 적힌 분청사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글씨체가 다르다.



분청사기를 아름답게 하는 기법들

상감象嵌

분청사기의 상감기법은 고려 청자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무늬를 새긴 후 그 선 안에 백토나 자토를 넣는 방법이다.



인화印花

그릇에 연꽃이나 국화, 연주문 등을 새긴 도장을 찍어 똑같은 무늬의 반복효과를 내는 기법이다. 도장무늬를 찍은 후 그 안에 백토를 바르고 굽는다. 특히 도장무늬는 관청, 지역 등의 이름과 함께 새겨지는 경우가 많다.



박지剝地

박지는 바탕을 벗겨낸다는 뜻으로 그릇에 백토를 씌운 후 무늬를 새기고 그 바탕을 긁어내고 굽는다. 백토를 긁어낸 부분에 산화철을 칠해 흑갈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주로 모란, 당초, 연꽃, 물고기무늬를 그려넣었다.



철화鐵畫

백토를 바른 후 산화철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대체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식물 잎이나 넝쿨같은 무늬를 주로 그렸다.



귀얄

귀얄(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기구)이라는 굵은 붓으로 표면에 백토白土를 속도감있게 바르는 기법으로 붓터치가 그대로 남는다. 시기적으로 상감이나 도장기법보다 나중에 사용된 기법으로 백자처럼 보이기도 하며, 분청사기 소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덩빙

그릇을 거꾸로 들어 굽을 잡고 백토물에 담근 후 바로 꺼내는 방법으로 그릇을 바로 세웠을 때 백토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그대로 두어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기법이다.





상감분청사기병 | 조선, 구산동 1701호, 높이 12.5cm

마상배

마상배 馬上杯는 글자 그대로 말 위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릇이며, 제사 등의 의식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중국 원나라 때 백자로 많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 청자나 조선 전기 분청사기와 백자에 많다. 이 마상배는 도장무늬 印花文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분청사기 전성기인 15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인다.



마상배 | 조선, 구산동 1152호, 입지름 9.0cm

그릇에 글자를 새긴 이유는?

각 지방마다 만들어 중앙 관청에 바친 그릇들이 도난당하거나 없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1417년(태종17년)에 자기를 수납하는 관청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다. 1421년(세종3년)부터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하였다.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382호, 입지름 15.6 cm

분청사기에 새겨진 지역 이름들...

분청사기는 왕실에 바치는 공물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릇에 제작한 지역의 이름을 새겨두었다. 현재 제작과 관련된 지역 이름은 약 30여 곳이 있다. 김해를 비롯해 경주, 경산, 밀양, 금산, 무장, 영천, 성주, 양산, 언양, 예안, 울산, 울진, 진주, 창원, 협천, 삼회, 진해, 청도, 함안, 군위, 고령, 의령, 선산, 곤남, 의흥, 해주, 삼척, 광주 등이 알려져 있다.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1916호, 입지름 12.6 cm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1754호, 입지름 15.7 cm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2158호, 입지름 14.8 cm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596호, 입지름 15.6 cm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발 | 조선, 구산동 1479호, 입지름 9.7 cm



'金海+長興庫用' 명 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1174호, 입지름 11.6 cm

왜 분청사기에 '長興庫'라는 글자를 새겼을까?

장흥고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조선 태조때 설치된 관청이다. 뚝자리, 기름종이(油紙), 종이(紙物) 등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관리하였다. 분청사기에 남아있는 글자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데, 이는 물건 관리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였다. 『태종실록』 33권 1417년의 기록에 의하면 장흥고에서 그릇을 나누어주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거두는데 반납율이 겨우 1/5 정도였기 때문에 그릇 파손과 도난 등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공물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관사의 이름을 표기하여 상납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분청사기에 새겨진 여러 관청들...

분청사기에는 관청의 이름과 제작한 지역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제작지와 편년 자료로 활용된다.

- 공안부 恭安府: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 上王이 된 정종을 위해 태종때 설치한 관청
1400년에 설치되어 1420년에 폐지
- 사선시 司膳署: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임금의 식사와 궁궐 내 음식을 담당
- 장흥부 長興府: 궁궐 내의 물품을 마련하고 관리 담당
- 경승부 敬承府: 1402년~1418년까지 세자의 교육을 담당
- 인수부 人壽府: 1418년~1556년까지 세자의 교육을 담당
- 덕녕부 德寧府: 1455년~1457년까지 단종에 관한 일을 담당
- 내섬시 內膳寺: 궁궐에 바치는 토산물, 2품 이상에게 주는 술과 안주, 왜인 倭人에게 주는 음식과 직조를 담당
- 예빈시 禮賓寺: 외국 사절을 대접하는 일을 담당
- 내자시 內資寺: 궁중에서 쓰는 쌀·국수·간장·직조 등을 담당



분청사기완 | 조선, 구산동 13호, 입지름 17.4cm



'公' 명 분청사기발 | 조선, 구산동 1754호, 입지름 17.0cm



연권문분청사기접시 | 조선, 구산동 439호, 입지름 14.6cm

백자, 우유빛 단아함에 물들다.

분청사기에 비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한 백자는 뽀얀 우유빛으로 유연함을 자랑하며, 단출하면서도 높은 품격을 나타낸다. 백자는 궁중음식을 담당했던 사용원 **시궐원**이라는 관청의 분원 **분원**인 관요 **관요**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관요의 흐름과 함께 하였다.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백에 바탕을 두는 백자는 안료와 무늬에 따라 상감·청화·철화·동화백자로 구분된다. 상감백자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16세기 이후 소멸하고, 15세기 중반부터 만들기 시작한 청화백자는 새하얀 백자 표면에 푸른색 안료로 산수·사군자·꽃과 새·용 등을 담백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저렴한 철화안료를 이용한 철화백자가 유행하였고, 구리가 주성분인 안료를 이용한 동화백자도 있다.

구산동과 죽곡리유적의 백자는 순백의미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작은 백자병 뿐만 아니라, '金海上中 **김해상중**', '果과'와 같은 명문이 있는 것도 확인된다.

푸른색 안료
靑靑靑靑: 페르시아 지방에서 생산되어 중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코발트 안료를 회회靑 회靑 또는 회靑이라고 함. 청화 안료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용을 규제하기도 하였음.



김해 구산동유적 출토 백자발



상감백자병

상감백자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에 유행한 백자에서 확인되는 기법이다. 분청사기의 무늬와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백자라는 원료만 바꾸어 만든 것으로 분청사기의 전통기술 체제를 아직도 지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란문상감백자병 | 조선, 구산동 491호, 높이 13.1cm

푸른 빛이 도는 백자병

푸른빛이 도는 작은 백자병이다. 백자 역시 가마에서 구울 때 소성 조건이 좋지 못하거나, 태토에 불순물이 있는 경우 순백의 색깔보다는 황갈색이나 회청색을 띠기도 한다. 이 백자병의 바닥을 보면 모래 비짐을 사용한 후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형백자병 | 조선, 구산동 2199호, 높이 6.8cm

'果方'의 의미

'果方'은 주로 사용처나 용도를 나타내는 글자로, 果方과방은 큰 일을 치를 때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는 곳으로 주로 과방간, 숙설간, 장설간이라 한다. 구산동에서 확인된 '과果', '과방果方'이 있는 백자는 동일한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수직굽을 가지고 있는 분청사기의 기형이기 때문에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果' 명 백자발 | 조선, 구산동 412호, 입지름 15.7cm

'金海上中' 글자 뜻은?

지역명+품질+사용처 또는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김해에서 질 좋은 자기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사용된 장소나 용도를 적어놓은 것이라 보인다. 그릇의 깊이가 깊고 수직굽을 가지고 있어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유행하는 그릇의 형태와 유사하다.



'金海上中' 명 백자발 | 조선, 구산동 1539호, 입지름 17.7cm



백자발 | 조선, 구산동 1666호, 입지름 12.6cm

연적

벼루에 먹을 갈 때 쓸 물을 담아두는 작은 물그릇이다. 수적(水滴)·수주(水注)라고도 하며, 크기는 10~15cm 정도로 작다. 물을 붓고 따라내는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벼루가 있었기 때문에 연적도 함께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복숭아·감·집·동물·산 등 다양한 형태의 연적을 만들었다. 백자연적 위에 청화로 사군자와 산수화를 그려넣기도 하였다.



연적 | 조선, 구산동 1666호, 입지름 12.6cm



백자발 | 조선, 구산동 1666호, 입지름 12.6cm

흑유병

조선시대 흑유자는 고려 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아 항아리·장군·편병 등 저장·운반용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주로 17~18세기에는 분청사기에 비해 부수적으로 사용되었고, 19세기에 음식그릇 등 대중적으로 활발히 사용된 생활용기 중의 하나로,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대중적인 그릇이었다.



조선, 구산동 B-89호, 높이 8.7cm



2. 무덤에 넣는 물건들의 의미를 들여다보다

고려·조선시대 무덤은 삼국시대 무덤에 비해 부장품의 출토량이 많거나 화려하지 않는 편이다. 이는 신라가 통일한 이후 불교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김해 구산동·죽곡리유적 약 2,700여기의 고려·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청자·분청사기·백자와 같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청동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청동거울·동전·동곳·가위·도장·귀걸이·집게 등 다양한 금속제품과 염주나 갓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유리구슬이 출토되었다.

하나의 무덤에 많은 양의 물건은 넣지 않지만, 죽어서도 배불리 먹게 하려고 도자기나 청동그릇과 숟가락·젓가락을 넣어 두었고, 청동그릇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담겨있는 채로 확인되기도 한다.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곳·가위·귀걸이·갓끈구슬·도장 등으로 남녀의 구분을 시도하기도 한다.

청동그릇을 무덤 속에 넣다



청동세발술과 직물 흔적(경주 황남대총)

무덤 속에 청동그릇을 넣어두는 것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상위 계층의 무덤에서 확인되었다. 고려·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청동그릇에 숟가락, 젓가락이 담긴 채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죽어서도 굶지 말고 배불리 먹으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청동제품이 유행하였는데, 청동합이 대부분이며, 그릇의 표면에 바구니나 직물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그냥 청동그릇을 무덤에 넣는 것이 아니라, 대바구니에 담거나 비단이나 마와 같은 천으로 감싼 다음 무덤에 넣는 당시의 매장 풍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매장풍습은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신라 왕릉급 무덤에서도 청동그릇의 표면에 직물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많다.

청동합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죽곡리유적의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이 청동합의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며, 그릇의 안쪽에 총 8개의 못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못은 그릇과 굽을 따로 제작하여 못으로 고정하여 조립해서 만든 과정을 보여준다.



청동합의 그릇 안쪽면



청동합의 바깥 바닥면



청동합 | 고려, 죽곡리 40호, 뚜껑 높이 2.8cm, 발 높이 8.7cm
청동숟가락과 젓가락 | 고려, 죽곡리 4호, 길이 26.1cm/25.8cm



청동접시 | 고려, 죽곡리 4호·2호, 입지름 15.9cm · 10.2cm



청동합 | 고려, 죽곡리 227호, 높이 13.7cm



청동합 | 조선, 구산동 1278호, 높이 15.1cm



청동합 | 조선, 구산동 1840호, 높이 11.5cm



청동합 바닥 세부(대바구니 흔적)

청동제품에 부착된 직물을 들여다보다

박윤미(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은 의복뿐 아니라 장신구, 침구류 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이다. 또한 조선시대까지는 계층과 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직물의 종류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부와 사회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의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섬유류가 오랜 기간 존재할 수 없어서 실물로 밝혀진 것은 외국에 비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근래 조선시대의 경우 회곽묘를 중심으로 많은 복식이 출토되고 있어 직물사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수백 년 전의 옷감이 분묘에서 출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금동유물에는 간혹 직물편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금동녹이 섬유유기질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직물사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유물 가운데에도 직물이 남아 있는 유물들이 있다. 유물에는 작은 크기의 직물편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보존 상태는 나쁘지 않아 직물의 조직과 밀도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본 조사에서는 금동유물을 중심으로 부착직물에 대한 실물조사를 하여 직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육안으로 직물의 부착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직물의 율이 고른 부분을 실체현미경(Nikon Shuttle Pix)으로 관찰·촬영하였다. 촬영한 이미지는 Image Processing Software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지점을 5회 이상 측정하여 직물밀도와 실직경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실직경은 mm, 직물 밀도는 cm당 경사×위사의 율수로 표시하였다.

부착된 직물은 모두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남아있으며 식서(飾書)가 남아있지 않아 경사와 위사의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데, 특히 양 방향의 밀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밀도가 다른 경우 대체로 밀도가 고른 방향을 경사로 하고 고르지 않은 방향을 위사로 정하였다. 이것은 위사가 감긴 북을 넣고 바디를 칠 때 치는 힘에 따라 밀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직(手織)으로 직조된 직물의 경우 위사의 밀도는 부위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물의 특성

1. 구산동 437호 동전

동전 3개가 겹쳐있는데 큰 동전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조금 작은 동전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동전의 양쪽 면에 모두 직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편의상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동전의 앞면에는 직물과 솜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도 1~3> 직물은 두 겹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특성으로 보아 동일한 직물로 여겨진다. 직조에 사용된 실은 S방향으로 꼬임이 있는 우연사(右捻絲)이며 실의 직경은 0.25~0.60mm로 굵기에서 차이가 난다. 직조에 사용된 기법은 직물조직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인 평직으로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대로 교차되는 구조이다. <도 4> 직물의 평균밀도는 경, 위사 19×19올/cm이다. 직물의 단면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走



査電子顯微鏡으로 관찰한 결과 단면이 원형의 편평한 형태이며 가운데에는 루멘(Lumen, 성장하는 동안 영양분이 이동하는 도관)이 있는 구조 <도 5>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명棉의 특징적인 형태이다¹⁾. 그리고 직물의 표면에는 잔털과 같은 것이 많은데 무명은 목화솜을 잡아 늘리며 가늘게 꼬임을 주면서 실을 만들므로 솜의 보푸라기가 있는 것이 무명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무명은 대부분 오른쪽으로 꼬임이 있는 우연사로 직조되었다.

동전의 다른 한쪽에는 솜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는데 <도 6> 아래에는 무명으로 보이는 직물이 약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솜은 다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동절기의 추위를 막기 위해 솜을 충전하여 만든 솜옷, 물건의 파손을 막기 위한 솜보자기, 침구류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동전에 남은 흔적으로 보아 무명에 솜을 넣어 만든 물품의 흔적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종류는 확인할 수 없다.

동전의 뒤에는 직물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식서방향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동일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은 우연사이며 직경은 0.32~0.92mm로 차이가 많이 나며 직물의 밀도는 16×10올/cm² 정도로 동전 앞에 있는 직물보다 성근 편이다. <도 7~9> 이 직물 또한 무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구산동 1095호분 청동합

청동합에는 직물편 2종류가 부착되어 있다. 두 직물 모두 평직으로 직조되어 있는데 한 점은 무명으로 추정된다. 실의 직경은 0.47~0.90mm 사이이며 직물의 밀도는 15×12 올/cm² 정도이다. 직물의 폭을 알 수는 없으나 35cm로 가정한다면 6~7세에 해당되는 직물이다. <도 11~12>

다른 직물은 마직물로 여겨진다. <도 13~14> 실의 직경은 0.46~0.95mm 사이로 직경의 차이가 많이 나며 '삼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마직물임을 알 수 있으며, <도 13>에 삼기의 흔적을 표시하였다. 삼베나 모시와 같은 인피섬유(韌皮纖維)는 단섬유(短纖維)로 최장 길이는 3m를 넘지 않으므로 직물을 짜기에 적합한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을 잇는 방식과정이 필요하다. 전통베짜기에서는 이 과정을 '삼기'라고 하며, 인피로 직조한 직물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도 15> 또한 실의 굵기가 일정치 않은 것은 인피를 손으로 가늘게 짜므로 굵기가 균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구산동 1479호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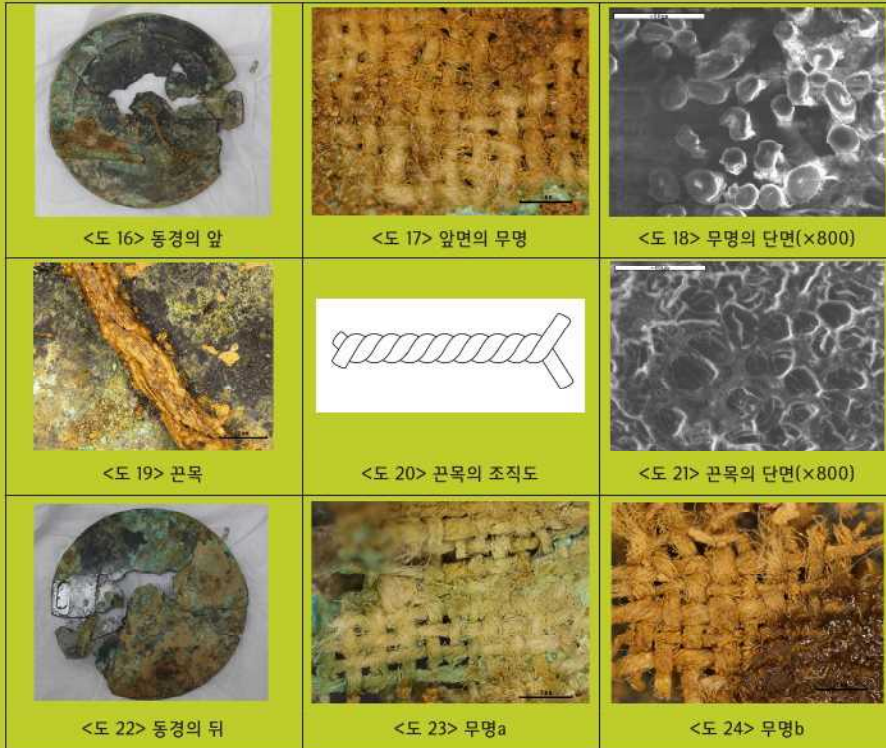
동경에는 앞과 뒤에 모두 직물편이 부착되어 있다. 앞의 직물은 평직의 직물로 제작에 사용된 실은 우연사이며 직경은 0.20~0.60mm 사이이고 직물의 밀도는 21×18 올/cm²이다. 직물의 표면에는 보푸라기가 많이 나타나 있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의 단면 관찰에 의해 무명임이 확인되었다. <도 17~18>

동경 앞 가운데의 고리에는 끈목이 남아 있는데 실 2가닥을 오른쪽으로 비비면서 합친 이합사(二合絲)이다. <도 19~21>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관찰한 결과 외형은 사각, 오각, 육각, 타원형 등의 다각형이고 루멘은 길쭉하거나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대마(大麻)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

동경의 뒤에는 여러 곳에 직물편이 남아있는데 모두 평직물이며 직물 표면에는 보푸라기가 보인다. 직물 밀도를 측정한 결과 25×27 올/cm²인 것(a)과 22×20 올/cm²의 2종류로 구분된다. 포폭을 35cm로 가정하면 a는 11세이며 b는 10세의 무명으로 11세 무명의 경우는 세목(細木)에 속하는 울이 매우 고운 무명이다.

1) 국립민속박물관(2005),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 p.47

2) 국립민속박물관(2005), 앞의 책, pp.34-35



4. 구산동 1840호 청동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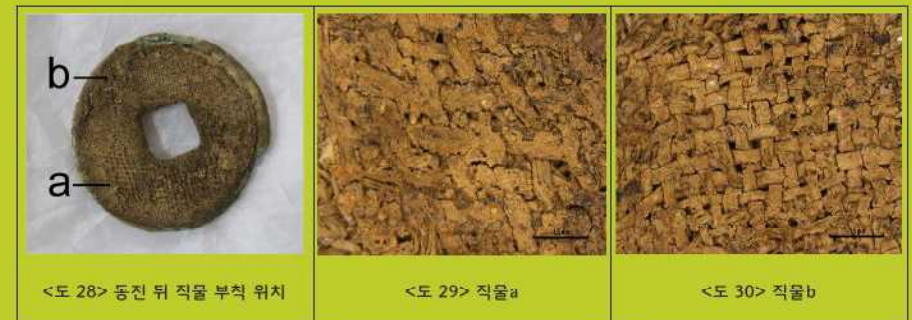
청동합의 뚜껑과 옆면에 고르게 직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마치 그릇에 맞게 싸여 있었던 것 같은 형태로 남아있다. 직물은 동일직물로 보이며 직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청동합을 썼던 보자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평직의 직물이며 실은 우연사이며 직경은 0.28~0.80mm이며 직물의 밀도는 13×10올/cm²이다. 평직으로 직조되었으며 실에 보푸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육안으로는 무명으로 추정되었는데 실제 단면관찰 결과에서도 단면이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중앙에 루멘이 보이고 있어 무명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5. 구산동 1922호 동전

동전의 뒤에 직물이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데 크게 2종류의 직물로 구분된다. 직물a는 평직으로 직조되었고 실에는 군데군데 '삼기'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실의 직경은 0.40~0.73mm 사이이며 직물의 밀도는 8×10올/cm²로 성근편이다. 직물a의 위에는 직물b가 겹쳐있는데 a와 마찬가지로 평직으로 직조되었으며 실의 직경은 0.20~0.40mm 정도이며 밀도는 18×20올/cm²로 전통포폭으로는 10새의 직물이다. 두 직물 모두 마직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많은 이물질이 묻어있어 육안으로는 정확한 종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6. 죽곡리 277호 청동합

죽곡리는 고려시대의 고분으로 본 조사에서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유물이다. 청동합의 뚜껑과 옆면, 그리고 바닥에 조그마한 직물편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직물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사의 방향이 같고 실의 직경이나 밀도 등의 특성이 유사하여 동일 직물로 여겨진다. 실의 직경은 0.25~0.45mm이며 S방향으로 꼬임이 있고, 직물의 밀도는 14×13올/cm²이다.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단면 관찰에서 단면의 형태가 다각형이

며 가운데에 길쭉한 루멘이 보이고 있어 삼베로 확인되었다. 직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청동함을 싸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본 조사는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동유물 가운데 직물이 부착되어 있는 유물 6점의 실물조사로 이루어졌다. 5점은 조선시대의 구산동 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동전과 청동합이며, 1점은 고려시대의 죽곡리227호분의 청동합이다.

부착직물은 크게 무명과 마직물로 밝혀졌는데 마직물의 경우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해 성분이 밝혀진 삼베가 있으며 끈목한 점도 삼끈으로 확인되었다.

근간 조선시대 회곽묘를 중심으로 많은 직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직물사를 규명하는데 큰 가치를 지닌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직물들은 크게 특징적인 직물들은 없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무명과 삼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동유물을 중심으로 작은 직물편으로도 수백 년 전의 직물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료가 축적되어 우리나라 직물사와 복식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표 1> 청동유물 부착직물의 특성

고분명 (시기)	도면 번호	유물명	직물 종류		직물 조직	실의 특성			밀도 (올/cm)
						구분	직경(mm)	꼬임	
구산동 437호 (조선)	김60197	동전	앞	무명	평직	경사 위사	0.24~0.50	S	19
				숨				S	19
			뒤	무명	평직	경사 위사	0.32~0.92	S	16
								S	10
구산동 1095호 (조선)	김60887	청동합	무명		평직	경사 위사	0.47~0.90	S	15
			마직물		평직			경사 위사	0.46~0.95
						S	9		
						S	5		
구산동 1479호 (조선)	김61159	동경	앞	무명	평직	경사 위사	0.20~0.60	S	21
				끈목	이합			10,0	S
			뒤	무명a	평직	경사 위사	0.15~0.40	S	25
								S	27
				무명b	병직	경사 위사	0.16~0.50	S	22
								S	20
구산동 1840호 (조선)	김61456	청동합	무명		평직	경사 위사	0.28~0.80	S	13
								S	10
구산동 1922호 (조선)	김61495	동전	a	마직물	평직	경사 위사	0.40~0.73	S	8
								S	10
			b	마직물	평직	경사 위사	0.20~0.40	S	18
								S	20
죽곡리 227호 (고려)	김64789	청동합	삼베		평직	경사 위사	0.25~0.45	S	14
								S	13

왜 얼굴을 비추는 거울을 무덤에 넣었을까?

고대로부터 거울은 얼굴을 비추어 얼굴을 살피는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거울은 가진 자의 신분을 상징하고,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가 사용하는 물건, 즉 의기(義器)였다.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거울은 대부분 중국거울이거나 중국거울을 모방하여 만든 거울이었다. 이러한 청동거울을 무덤에 넣는 것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동거울은 고려시대에 이르서는 사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화장용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면서 다양화되었다. 특히 구산동유적의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여러 점의 청동거울이 발견되었다. 주로 십장생이나, 거북, 학, 국화, 꽃, 반룡(蟠龍), 새 등의 동식물 무늬와家常貴富(가상귀부)와 같은 길상문구 등이 새겨져 있으며, 직물흔적이 남아있기도 한다.

벽사(辟邪): 거울의 반사빛을 이용하여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미임. 또다른 벽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긴 창을 일부러 구부러 넣기도 함.

반룡(蟠龍):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용.

청동거울

원형의 무늬가 없는 거울로 앞뒤에 직물이 잘 남아있으며, 꼭지에는 매달았을 때 사용한 끈이 4.4cm 정도 남아있다. 거울에 남아있는 직물의 흔적으로 보아 거울을 무덤에 넣을 때 직물과 잘 감싼 후 매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거울 | 조선, 구산동 1479호, 지름 9.0cm, 무게 24g



김해 구산동 유적 출토 청동거울



직물 세부

고려·조선시대의 거울을 들여다보다

이양수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많은 동경이 제작·사용되는 때는 고려시대이다. 최근 삼한시대의 다뉴경을 비롯해 漢鏡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려경의 수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고려경이 많이 제작된 이유는 이전과 달리 거울이 용모를 가다듬을 때 사용되는 실용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거울은 생활용품이 아니라, 샤먼의 제기 혹은 왕과 같이 높은 신분임을 알려주는 위신재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울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은 많지 않다.

고려경의 양에 비하여 조선경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경상·경첩 등에 유리로 된 거울이 사용되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되지만, 실제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18세기 청 건륭제 이후에 유리거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이즈음부터 유리거울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네덜란드를 통해 유리거울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1893년 유리거울의 대량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조선경은 재지적인 고려경이 변화한 것,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김해에서는 재지적인 고려경이 변화한 십장생문경과 이전 시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체자명대경, 일본에서 제작된 화경 등 다양한 동경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산동에서 출토된 거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구산동 1244호 출토 용호문경

목관 내 허리쪽에서 거울면을 위로 하여 출토되었다. 동경과 편경 외에 다른 부장품은 없다.

동경은 부분적으로 부식이나 박리가 되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중앙에 원형의钮가 있고 네모난 모양의 구멍이 있어 끈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장자리에는 두께를 두껍게 하여 이중파상문과 삼각문을 새겨 넣었고, 즐치문으로 문양대와 구획



하였다. 즐치문 안쪽에는 명문이 있는데, 원래는 14~15자가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靑蓋作竟佳且……'이다. 그 의미는 '靑蓋가 만든 거울로 좋은 것이다'라고 대충 해석된다. 그 안쪽에는 좌측에 호랑이, 우측에 용이 서로 마주보고 입을 벌리고 있다. 그 안쪽에 원형의钮좌가 있는데, 삼각문으로 장식하였다. 중국 후한대의 동경을 본떠 새로 만든 것이다. 직경 10cm, 무게 122g

구산동 893호 출토 기상부귀명경

목관 내 머리쪽에서 거울면을 바닥으로 하여 출토되었다. 목관 우측 충전토 내에서 청동으로 만든 손가락, 젓가락이 함께 출토되었다.

동경은 전면 중앙에 한지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수착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표면이 박리되었다. 주연은 평연, 주연과 주문양대 사이와 주문양대와钮좌 사이에 즐치문대를 배치하여 구획하였다. 주문양대에는 사방에 4개의 소유를 배치하고 그 사이의 중앙에 '家常豊富'순으로 시계방향으로 명문을 배치하였다.

그 뜻은 '집안에 항상 귀함과 부유함이 있다'는 길상구이다. 명문 양쪽에는 앉아 있는 새를 표현해 총 8마리가 확인된다.钮좌는 3선을 조를 맞추어 십자형으로 문양을 새긴 뒤, 그 오른쪽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듯 표현하였다.鈕는 반원형에 가까운데,鈕공을 뚫은 것이 흡사 드릴을 이용해 천공한 듯한 모습이다. 중국 한대의 동경을 본떠 새로 만든 것이다. 직경 10cm, 무게 158g



구산동 395호 출토 십장생문경

목관 내 머리쪽에서 거울면을 바닥으로 하여 출토되었다. 관내에서는 머리쪽에 동경, 다리쪽에 편지칼書刀, 쪽집게 등이 출토되었고, 관외의 남장벽쪽에서 하관제와 관련된 점시 두 개, 청동그릇 한 점이 출토되었다.

동경은 평연에 원권을 돌려 구획한 뒤 사슴, 거북, 학, 태양, 대나무, 구름 등 십장생을



표현하고 있다. 중앙에는 별도의紐狀 없이紐가 자리잡고 있다. 문양은 양각되어 있으며,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직경 18.9cm, 무게 434g

고려경에서 보이는 도상적 특징과紐나 주연의 형태, 청동의 질 등에서 볼 때, 조선적인 동경으로 판단된다. 편지칼과 눈썹, 상투 등을 다듬을 때 쓰는 족집게가 함께 출토된 점에서 선비의 무덤으로 보인다.

구산동 700호 출토 귀갑쌍조문경

목관 내부 시신의 머리 근처에 거울면을 위로 하여 부장하였다. 목관을 결구하던 못과 동경 외에 부장품은 없었다.

동경은 가마쿠라 시대의 화경으로 직각연에 즐치문과 연주문 등을 돌린 '疑漢式鏡'이다. 외구는 중국 한대의 동경 문양, 그 안쪽에 귀갑문을 새겨 넣었다. 귀갑문 안쪽에는 꽃무늬로 장식하였다. 고리는 거북이모양이며, 거북의 입에 학 두 마리가 마주보며 입을 맞추고 있는 형태이다. 직경 9.6cm, 무게 77g

이 거울은 <그림 1>에 제시한 1457년 일본에서 제작된 매화산쌍학경의 외구문양과 유사한데, 이러한 것을 중국 한경을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疑漢式鏡'이라 부른다. 다만 귀뉴의 위쪽에 날아가는 새의 표현이 학이 아닌 점에서 嘉曆3년(1328) 제작된 귀갑문쌍조문경과 유사하여 시기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구산동 621호 출토 국화쌍학문경

목관 외부 머리의 좌측에 거울면을 위로 하여 부장하였다. 목관의 좌측에 감실을 설치하였고 내부에서 청동으로 만든 것가락이 출토되었다. 것가락을 제외하면 모든 유물이 모광바닥에서 출토되었다. 피장자 왼쪽 허벅지 옆쪽에서 철가위, 묘광 중앙에서 철낫과 옥구슬이 노출되었다. 동경과 철가위는 하관계와 관련된 공헌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경은 무로마치시대의 화경으로 직각연에 귀뉴를 가졌으며 거북의 입에 학 두 마리가 마주보며 입을 맞추고 있는 형태이다. 아래에는 물이 넘실거리며 긴 손잡이를 가진 바가지를 표현하고 그 오른쪽에 국화 세 송이가 활짝 피었다. 직경 6.3cm, 무게 29g.

유사한 것이 여주 월송리 10호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그림 1>에 제시한 1445년 일본에서 제작된 매화산쌍학경의紐와 학의 문양 배치 등이 극히 유사하여 제작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좌-梅花散双鶴鏡(大安2年/1445) | 우-梅花散双鶴鏡(長祿2년/1457)
<그림 1. 무로마치 시대 화경 - 화식경 비교자료>

동그란 돈, 동전!!!



반량전(사천 녹도)



화천(김해 회현리패총)



오수전(창원 다호리)

현대와 같은 형태의 동전이 유통·활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지만, 철이 풍부했던 삼한시대에서 이미 덩이쇠(鐵錠)이 교환·교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사천 녹도유적이나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중국 동전인 오수전, 화천, 반량전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무덤에 동전은 매납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고려·조선시대의 무덤에서 나타나며, 동전은 도교의 매지사상(모자를 사들이는 계약서 같은 것)이나 죽은 자가 저승에서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고려시대에는 건원중보나 해동통보 등을 만들어 일부 부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국동전이다. 조선시대에는 중국동전과 함께 자체적으로 만든 조선통보, 상평통보를 무덤에 매납하였다.

조선시대 동전, 조선통보

조선시대 초기에 당나라의 개원통보(開元通寶)의 체제를 본떠서 조선통보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1633년(인조 11)에 화폐정책의 일환으로 동전을 유통시키기 위해 명나라의 만력통보(萬曆通寶)를 본떠서 조선통보를 만들었다. 인조 때 만들었던 조선통보는 상평청(常平廳)에서 만들기 시작하다가 점차 지방에서 만들었다. 1670년대 말부터 상평통보(常平通寶)가 국가의 유일한 법화로서 유통·보급되었다.



조선통보 | 조선, 구산동 1575호, 지름 2.3cm



김해 구산동·죽곡리유적 출토 동전



조선통보 | 조선, 죽곡리 2호, 지름 2.4cm

상평통보

조선시대 대표적인 동전화폐로, 앞면에는 구멍을 둘러싸고 상하좌우에 '常平通寶'를, 뒷면의 구멍 위에 동전을 만든 관청의 이름이 있다. 최초로 1633년(인조 11)에 상평청常平廳을 설치하고 주조·유통하였으나 실패하고 1678년(숙종 4)에 다시 주조하여 점차 전국적인 유통체계가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결국 1894년(고종 31)에 발행이 중단되었다.



상평통보 | 조선, 구산동 2074호, 지름 2.3cm



동전 | 조선, 구산동 1922호, 지름 4.1cm

순희원보

동전 뒷면에 동전이 발행된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 기년전記年錢의 하나로 중국 남송에서 만든 순희원보淳熙元寶는 뒷면에 원년(1년)부터 16년까지 표시되어 있어 각각의 동전이 순희 몇 년에 주조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남송 효종孝宗 순희원년(1174-1189)



순희원보 | 남송, 구산동 1575호, 지름 2.3cm

천계통보

중국 명나라 화폐로 희종 천계원년(1621년)에 주조된 것으로 무배자無背字(뒷면에 글이 없음)이다. 천계天啓를 연호로 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주조된 동전이 많지 않으며, 희귀한 편이다.

*명나라 희종熹宗 천계제天啓帝
[1605~1627] 제위기간 1620-1627



천계통보 | 명, 구산동 1479호, 지름 3.5cm

죽어서도 배부르게 하여라

순가락이나 국자처럼 생긴 토제품은 사천 늑도유적의 미니어 처명器나 김해 죽곡리유적에서 확인된다. 삼국시대 이후, 신라 황남대총이나 금관총,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금속 순가락과 젓가락이 확인되었다. 통일신라 월지의 금동순가락은 일본까지 전파되었고, 창녕 말흘리 퇴장유구에서도 순가락이나 국자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순가락과 젓가락을 세트로 무덤에 매납하는 것은 고려·조선시대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동순가락과 젓가락은 매우 귀한 음식도구로서, 무덤에서는 남녀·좌우에 관계없이 고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청동합에 순가락과 젓가락이 담겨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 순가락은 술부의 형태나 자루 끝모양(개비꼬리, 연꽃봉오리)에 따라 구분된다.

구산동유적에서는 특이하게 국자와 자루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또 다른 술부가 달린 순가락도 출토되었는데,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청동순가락과 젓가락 | 조선, 죽곡리 47호·137호, 길이 23.5~25.9cm



청동순가락 | 조선, 죽곡리, 길이 21.5~26.7cm



청동순가락 자루 끝 세부모습



청동술가락 | 조선, 구산동, 길이 19.3~29.6cm



청동술가락 | 조선, 구산동 521호 · 1452호 · 1692호, 길이 28.3~29.6cm



연봉세부



자루 무늬 세부

양쪽을 다 사용하는 약술가락

구산동유적에서 출토된 이 술가락은 자루 끝에 긴타원형의 술부와 달리 1/3 크기의 타원형의 또 다른 작은 술부가 달려있다. 즉 양쪽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주로 약술가락이라 하며, 탕액을 짓거나 복용할 때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

때로는 은으로 만든 약술가락을 사용하는데, 열전도율이 높은 은술가락은 뜨거운 약을 짓는데 적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독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열전도율 때문에 떠먹는 술부만 은으로 만들거나 술부 바닥만 은으로 상감하기도 한다.

실제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옆면의 형태가 편평하거나 날이 서듯이 닳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약술가락을 무덤에 넣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술가락 | 조선, 구산동 AI-2293호 · 1399호
길이 19.3 · 25.7cm



조선시대의 다양한 요리도구들

부드럽게 구부러진 자루의 끝에 연봉이나 제비꼬리와 같은 장식 대신 지름 0.2cm의 원형의 술부가 달려있다. 일부 파손된 채 출토되었으며, 술부에 총 5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현재의 요리도구와 비교하면 기름과 같은 액체 속에 또 다른 이물질이나 건더기를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조선시대 무덤에서 술가락 종류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술부의 크기나 둥근 형태로 보아 국자로 추정되는 것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구산동유적에서는 원형의 술부에 직각으로 자루가 달린 국자가 출토되었다. 자루는 대부분 파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다.



청동술가락 | 조선, 구산동 1039호, 길이 26.5cm



청동국자 | 조선, 구산동 AI-2427호, 길이 5.1 cm

남자도 머리에 장신구를 하였다네

고려시대의 머리 장신구는 비녀^𠵿와 동곳^{洞骨} 두가지다. 비녀는 길쭉한 몸체에 비녀머리가 있는 것으로 주로 여자들이 머리를 틀어올릴 때 사용한 것이다. 동곳은 ㄱ형 몸체에 윗 부분에 장식이 달린 것으로 남자들이 상투를 틀면서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로 상류층은 금, 은, 비취, 산호, 옥 등을 계절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서민들은 소뿔^{牛角}, 상중^{喪中}에는 나무, 흑각^{黑角}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동곳의 머리모양 중에 부처머리모양의 것을 불두잠^{佛頭簪}이라고 하는데, 구산동이나 죽곡리유적의 것은 장식성이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조선시대의 것은 고려시대의 것에 비해 동곳의 두께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



은 · 동제동곳 | 고려, 죽곡리 7호 · 10호 · 14호 · 16호, 길이 5.7~8.1cm
조선, 구산동 B-26호 · 41호, 길이 7.7~10.6cm



왜 쇠가위를 문었을까?

규중칠우 國中七友
: 바느질은 조선시대 여성의 덕목 중 하나로,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를 말한다.



침동가위(경주 분황사)



남가위(경주 월지)



금동가위(경주 월지)



현대 쪽가위

가위는 두 개의 날을 교차시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종이·천·가죽 등을 자르는 도구이다. 형태는 현재의 가위처럼 손가락을 집어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쪽가위처럼 손가락을 집어 넣는 곳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가위 裁針은 규중칠우 國中七友의 하나이다. 보통 가위가 출토되는 무덤은 여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분황사 석탑 및 월지(안압지)에서 출토된 납으로 만든 작은 가위가 확인되었는데, 현재 교차점이 없이 실을 자르는 쪽가위와는 달리 교차지점이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경주 월지에서는 초 심지를 자르는데 사용되었던 금동가위가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금동가위는 일본 쇼쇼인 正倉院의 금동가위와 유사하다.

구산동과 죽곡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여러 점의 철제가위는 현대의 가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교차점이 중간지점에 있으며, 간혹 직물흔적이 남아있기도 한다.



가위에 남겨진 직물 흔적



철제가위 | 조선, 죽곡리 144호 · 구산동1344호, 길이 21.5 · 18.4cm

가위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최초의 가위로 알려진 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철제가위(기원전 300년경)이며, 특히 로마 시대의 가위는 남자의 수염을 깎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전한 前漢시대의 가위가 가장 이른 시기의 가위이다. 가위는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들어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여러 가지 물건들...



은 귀걸이 | 조선, 구산동 1108호, 길이 5.6cm



두 마리의 사자 손잡이가 달린 도장

고려시대 청동도장으로 개인도장私印이다. 고려시대 청동도장은 재료와 손잡이의 모양, 도장무늬에 따라 조선시대의 것과 구분된다.

손잡이가 쌍사자와 같은 길상의 동물이 장식되어 있어 예술적인 가치가 높지만, 도장의 내용印文은 판독되지 않는다. 한자와 유사하지만 한자로 읽혀지지 않고 당시 중국의 거란문자로 된 도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한자가 아닌 다른 문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시대 청동도장은 공문서에 사용된 관인, 소유자를 알 수 있게 책에 찍거나 봉투에 찍었을 봉함도장封緘印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청동 도장 | 조선, 구산동 B-89호 · 29호, 높이 4.7 · 1.2cm



동 반지 | 조선, 구산동 · 죽곡리유적, 지름 1.9~2.6cm





청동집게 | 조선, 구산동 A1-2502호 · 1020호 · 184호, 길이 7.4~8.9cm



청동령 | 조선, 구산동 1407호, 길이 3.2cm



청동꾸미개 | 조선, 죽곡리 20호, 길이 3.9cm(좌)



유리구슬 | 고려 · 조선, 죽곡리, 지름 1.1~1.7cm



유리구슬 | 조선, 구산동유적, 수정 지름 2.1cm

유리구슬은?

구산동에서 나온 유리구슬은 대부분 둥근 형태 **초포**이지만, 코일이나 나선형처럼 둥근 막대기에 말아서 만든 유리도 확인된다.

구성성분을 분석해보면 **소다유리** · **포타쉬유리(흑색)** · **포타쉬납유리(백색 · 감청색 · 자색)** · **알칼리혼합유리**로 구분된다. 특히 코일처럼 말아서 만든 유리는 육안으로도 제작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고려 · 조선시대 무덤에서 주로 출토하는 유리구슬은 남성들이 쓰는 갖의 끈이나 염주로 추정된다.



| 테마전 |





'果方' 과 같은 발이다.



■ 관람시간:

-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
- ◀ 4월~10월 : 토요일 야간 개장(오후 9시까지)
-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 휴관일: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은 다음날 평일)

■ 관람료 무료

■ 홈페이지 예약

- ◀ 학생 관람 단체: 30명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 ◀ 전시해설: 1일 4회, 회당 50명
- ◀ 가야누리 체험실: 1일 9회, 회당 50명, 예약 잔여 시 현장 접수 가능

■ 박물관 활동지

- ◀ 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어린이박물관 관람 시 유의사항

- ◀ 어린이박물관은 체험 중심 공간이므로 관람인원을 회차 당 50명으로 제한
- ◀ 인터넷 사전예약은 개인 및 단체가 1~50명까지 예약 가능
- ◀ 안내데스크에서 예약확인증과 예약사항 확인 후 입장 가능
- ◀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사전인터넷예약제로 운영



■ 지하철 이용: 부산-김해 경전철 박물관역 하차 2번 출구

■ 버스 이용: 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 소요

- ◌ 구산 백조아파트 하차: 1, 1-1, 8-1, 14, 56, 58-1, 59-1, 71, 123, 128, 128-1, 130, 1004
- ◌ 김해 문화의 전당 하차: 5-1, 8, 58, 59, 100
- ◌ 김해 교육청 하차: 2, 3, 4, 7
- ◌ 박물관역 하차: 100, 내외순환버스

| 전시 관람 예절 |

- ◀ 박물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음식물의 반입과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전시실 입장 전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 ◀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 전시실 내에서 플래시를 이용한 촬영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께서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람 질서에 대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김해박물관 SNS 계정 |

- ◀ 블로그: <http://blog.naver.com/gnm999>
-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nm999>
- ◀ 트위터: <https://twitter.com/gnm888>
- ◀ 카카오토리: <http://story.kakao.com/ch/gimhaenm/app>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gimhaenm>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全海

가야를 벗고
고려·조선을 입다

기획·편집 _ 김현희
전 시 _ 김현희, 이양수, 안소연, 박은지
원 고 _ 김현희, 이양수, 박은미

발 행 _ 국립김해박물관
디 자 인 _ 함춘원
사 진 _ 김경덕

발 행 일 _ 2015년 2월 13일

도록과 관련된 PDF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621-9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의 길 190
전화 055-320-6800 팩스 055-325-9334
홈페이지 <http://gimhae.museum.go.kr>